

광주·전남 여성들 밤길이 불안하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급증... 酒暴은 줄어

광주·전남 밤길이 불안하다. 강간·강제 추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경찰이 올해 성범죄를 '4대악(惡)'으로 규정, 성폭력 특별관리구역과 여성 안심구역을 정해 방범 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 체감 안전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경찰청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술에 취한 채 강간·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는 172명으로 5년 전인 2008년(149명)에 견줘 15.4% 증가했다.

음주 상태에서 '못된 짓'을 해 불합리한 범죄자의 경우 ▲2009년 141명 ▲2010년 152명 ▲2011년 151명 ▲2012년 172명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

성폭력 근절에 치안력을 집중한 올해 상반기도 상당수 지역에서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경찰 관내에서는 올 상반기

135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103건)에 비해 급증했고 서구 지역도 강간·강제추행(106건) 사건은 전년도(86건)에 비해 많았다.

전남도 비슷해 음주 상태에서 강간·강제 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2008·2009년 129명 ▲2010년 143명 ▲2011년 146명 ▲지난해 161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별로도 올해 상반기 폭포 지역의 경우 강간·강제 추행 사건이 64건(2012년 34건)으로 크게 늘었고 광양도 올 상반기 발생한 강간·강제 추행 사건이 지난해 상반기(7건)보다 4배가 넘는 30건에 달했다.

반면,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범죄자의 경우 광주에서는 5년 전인 2008년(5097명)에 비해 지난해 17.4% 감소했고 전남도 지난해 주취 폭력자는 4361명으로 2008년(5432명)에 견줘 줄었다.

반면,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범죄자의 경우 광주에서는 5년 전인 2008년(5097명)에 비해 지난해 17.4% 감소했고 전남도 지난해 주취 폭력자는 4361명으로 2008년(5432명)에 견줘 줄었다.

북부경찰 관내에서는 올 상반기



영산강에 붓어 방류 '영산강 어메니티 봉사단' 단원들이 11일 오후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북구 용산교 인근 영산강에서 붓어 치어 3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MB 참석, 郡 홍보... 누군들 안 속겠나"

영광 '전기차 업체 주식 500억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납품권 미끼 투자 꼬드겨 희대의 사기극 벌여

사무실 내주고 환상 심어준 영광군도 책임져야

"생산 공장도 지어져 있는데, 영광군이 사무실도 빌려주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기공식에 참석했는데 어떻게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사기꾼'에게 돈을 뜯길 것이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김선경씨(52·가명)도 그랬다. 영광 대마산단 내 전기차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한 희대의 사기극 피해자 중 한 명이 될 줄 몰랐다.

최근 광주일보와 만난 김씨는 피해 과정을 설명하며 "누군들 속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용품 납품업자인 김씨가 평소 관심도 없던 전기차 업체 주식 투자로 피해를 보게 된 사연은 이렇다.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28일 영광군이 내준 전기차업체 E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E사 간부 최모(54)씨를 처음 만났다. 영광경찰 조사 결과, 영광 출신으로 E사 대표인 소모(68)씨의 부하 직원인 최씨는 이번 사기극에서 피해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맡았다.

김씨가 찾아가던 최씨 사무실은 영광군이 공짜로 전기차 업체에 빌려준 장소라고 했다. 사무실에는 E사 신기술이 담긴 홍보책자·연료 홍보자료 등이 가지런히 비치돼 있었고, 자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기공식 사진도 보였다. 전남도지사 등 지방단체장 얼굴도 있었다.

평소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 탓에 투자 의사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씨의 '사업설명'에 마음이 갈 만했다는 것이다. 이듬해 2월 3일 최씨와 다시 만났다. 믿음직한 친구가 소개한데다, '번듯한' 사무실을 두고 탄탄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심증도 갖게돼 부담없이 만났다. 김씨는 이 때 최씨로부터 전기차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사무용품 납품권을 우선적으로 출제하 5억 원 가량의 주식을 사는 게 어떻겠냐는 투자 제안을 받았다.

김씨는 부담스럽다며 선택 내시질 않았다. 그러자 최씨는 지인들을 소개해 주며 주식 매입 금액을 낮춰주겠다는 또 다른 제안을 했다. 한편으로는 "빨리 결정해달라. 사무용품 납품권을 달라는 친구가 있다"며 압박도 했다.

결국, 김씨는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한 주당 3000원씩, 600만 원 어치 샀다. 3000명에 이르는 희대의 투자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에 포함될 것이다. 또 지인 4~5명을 최씨에게 소개

해도 해줬다.

같은 해인 2012년 4월 18일 영광군에서 전기차 생산공장 5개 동 중 1개 동(8595㎡·2600평)에 대한 준공식이 열렸다. '주식 사길 잘했다'는 흐뭇함도 잠시, 사무용품 납품권을 주겠다는 최씨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후 최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김씨는 "신고하면 돈을 못 받는 것 아닐까" 고민하다 2012년 7월 17일 광주서부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600만 원의 주식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영광경찰로 이첩된 뒤 전체 피해자 2947명·피해액 509억 원에 달하는 희대의 사기극이 밝혀지게 됐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현제도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군에서 사무실까지 내주며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포장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압수수색

경찰, 용역사업 입찰 금품 수수 정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전행정부 소속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가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 11일 센터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광주·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를 비롯해 사업을 수주한 D사의 광주 본사 및 대전법인, D사 대표 문모씨 자택 등

에 수사관 등 28명을 보내 입찰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D사는 지난해 11월 광주전산센터에서 발주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등 9개 사업 가운데 7개를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7개 사업 규모는 약 400억원이다.

연남뉴스

'상사 폭행' 전남도청 소속 5급 사무관 대기발령

상사를 폭행한 전남도청 소속 5급 사무관(광주일보 9월 6일 6면)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도는 업무 시간 중 상사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도 공무원교육원 소속 A(58·5급)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실에서 원장 B(58)씨가 자주 반가(하루 중 4시간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을 지적하자 이에 항의해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00억 전기차 사기 업체 대표 재소환키로

영광경찰, 불응 땀 체포영장

영광 대마산단 내 전기차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한 500억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영광경찰은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E사 대표 소모(68)씨를 오는 24일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씨는 예초 지난 11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를 내세워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일 소씨를 불러 조사하려다 소씨가 불참해 이뤄지지 않은 만큼 24일 소환 요청에도 응하

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영광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전기차업체 E사의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는 모두 2947명, 피해액만 509억원에 달한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니웃침 (8885)



30대女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한평경찰은 11일 30대 여성 살인사건 용의자 신기하(42·사진)씨를 공개수배했다. 신씨는 지난 10일 한평읍 E교회 앞길에서 A(여·33)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신씨는 키 180cm에 스포츠형 머리도 오른쪽 눈썹 밑에 사마귀가 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스쿠버 장비 착용 양식 전북 씩씩이



스쿠버 장비 착용 후 바닷속에 들어가 마을 공동어장에서 양식 전복을 훔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서행.

○11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배모(52)씨 등 2명은 지난 9일 새벽 3시께 완도군 소안면 마을 공동어장 전복 양식장에서 전복 37kg을 몰래 채취한 혐의.

○이들은 일부 마을 주민들로부터 공동어장의 전복채취를 의뢰받고 일하러 왔다가 채취량이 부족하자 인근 마을 공동어장으로 들어가 몰래 채취했는데, 경찰은 해당 전복양식장에 불빛이 보인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검거.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입학문의 ▶ 062-605-1114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시
	학과	수시 1차	수시 2차	수시	
인문	신학과	20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8	7	5	
	유아교육과	10	7	3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6	4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5	-	5	
	총계	72	31	3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 1차모집 · 원서접수: 2013. 9. 4(수) ~ 13(금) · 전형일: 2013. 9. 26(목)

수시 2차모집 ·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 전형일: 2013. 11. 21(목)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 전형일: 2014. 1. 3(금)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기독교영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믿음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